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17

13. 정답: 4번

1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천명 의식은 상제천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문단을 보면 알 수 있음)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천의 개념은 자연천의 개념이므로 천명 의식이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선지는 불일치.

2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동양에서는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두었다.(1문단을 보면 알 수 있음) 따라서 천이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라는 선지는 불일치.

3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자연천 개념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문단을보면 알 수 있음) 따라서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3번 선지는 불일치.

4번이 정답인 이유:

자연천의 개념과 이후에 등장한 의리천의 개념을 제대로 읽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이하를 보면 자연현상의 근원이며(2문단에 나와있음) 도덕적 의미로서 등장한 의리천은 더욱 심화되어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문단을 보면 알 수 있음) 따라서 4번은 일치.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도덕적 의미로서의 천, 즉 의리천 개념인데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은 상제천 개념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 같은 것인지를 묻고 있다. 당연히 패스.

14. 정답 2번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인데 이는 글을 통시적으로 잘 파악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동양에서의 천의 의미와 그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으로 이어진 개념의 변화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것은 2번 선지이다. 다른 것은 전혀 정답의 대상이 될 가치가 없는 선지들이므로 설명은 패스.

15. 정답 1번

1번이 정답인 이유:

자연천 개념이 작용할 때에는 인간이 도덕적 자각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연천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었다. (3문단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2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상제천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와 결부되어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이로 인해 ‘천명’이 등장하였고 인간 행위에 타율성이 부여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심화된 의리천에서는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의 실현과 더 나아가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문단을 보면 알 수 있음)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 선지.

4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점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감을 알 수 있다. (1,2,3번 선지의 설명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남)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 선지.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

천명 의식은 처음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상제천에서) 통치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치를 잘못하면 그 명을 박탈한다는 생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해갔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16. 정답 4번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라는 보기에서 앞 절은 천의 표면적인 모습에 대응되며, 뒷 절의 내용은 작용 면에서의 천에 대응된다. 2번째 문단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천의 표면적인 모습과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것은 자연천에서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자연천으로 분류.

ㄴ.’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가 ‘ㄴ’에서 언급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ㄴ’은 상제천으로 분류.

ㄷ.’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명을 박탈해가는 천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천의 개념인 의리천과 대응된다. 따라서 ‘ㄷ’은 의리천으로 분류.

ㄹ.’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둔다.’는 설명은 자연천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캐치해 낸다면 상제천과 의리천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이 명을 내지 않으며(상제천이 될 수 없다), 저절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천(의리천이 될 수 없다)로 풀어도 적절한 풀이이다.

17. 정답 1번

어휘문제는 정확한 뜻을 다 알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의 감각으로 푸는 것이 가장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풀이일 수 밖에 없다. ㅜㅜ 절대 안될 것 같은 선지는 제외하고 주체를 바꾸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문제 풀이라고 하겠다.

a. ‘짙다’인데 ‘경향이 짙다’는 어떠한 정도가 ‘뚜렷하다’ 정도의 개념으로 푼다.

1번 선지는 가능성이 짙다 역시 가능성이 ‘높다=뚜렷하다’로 이해하고 풀면 굿.

2번 선지는 ‘커피가 진하다’의 의미로 이해하면 탈락.

3번 선지는 ‘안개가 자욱하다’의 의미로 이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으니 탈락.

4번 선지는 ‘꽃향기가 매우 난다(?)로 이해. 이것 역시 답이 아닌 것 같으니 탈락.

5번 선지는 ‘주위가 매우 어둡다’로 이해. 이 역시 답이 아닌 것 같으니 탈락.

결국, 가장 비슷한 의미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번 밖에 없다.